

물집게속과 사리

물집게속은 일본 국내에서는 오가사와라 제도와 류큐 제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라게 종류는 해안에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물집게속은 그 이름처럼 해변에서 내륙에까지 서식하고 있고 튼튼한 발톱이 있어 나무에도 잘 올라갑니다.

여름 사리 무렵, 밤이 되면 암게들은 배에 품은 유생을 바닷속에 놓아주기 위해 파도가 밀어닥치는 곳에 모입니다. 플랑크톤 같은 모습을 한 유생은 바다에 놓인 뒤, 바닷속을 표류하며 성장하여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면 작은 조개껍데기를 찾아 육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물집게속은 보통 식물을 먹지만 해안에 물고기 등의 사체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습성 때문에 해변의 청소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포획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